열정과 공격 축구 빛났다…구단 사상 최고 '3위'

광주FC, 포항과 최종전 무승부

광주FC 선수들이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38라운드 최종전이 끝난 뒤 '아시아무대' 진출을 기뻐하며 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가 3위로 '아시아무대'로 간다.

광주가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38라운드 최종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상대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위에도 승리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위 싸움을 했던 4위 전북현대와 5위 인천유나이티드가 나란히 패배를 기록하면서 광주가 3위를 지켰다.

구단 창단 후 가장 높은 자리에 선 광주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전반 4분 아사니가 왼발로 이날 경기 첫 슈팅을 장식했다.

7분 포항의 역습 상황에서 윤재운의 슈팅이 나왔지만 김경민이 품에 안았고, 2분 뒤에는 광주는 상대 퇴장으로 인한 호재를 맞았다. 공을 잡은 이순민을 향해 발을 높게 들었던 이호재가 레드 카드를 받고 그라운드에서 물러났다.

수적 우위 속 전반전 광주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어졌지만 포항 골키퍼 황인재가 '철벽 수비'로 광주를 울렸다.

전반 11분 프리킥 상황에서 아사니가 먼 거리에서 직접 골대를 겨냥했다. 바운드된 공은 골키퍼 황인재에 막혔다.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아사니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골키퍼 황인재 손맞고 흘렀다. 이어 왼쪽에서 다시 코너킥 상황이 진행됐지만 광주의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포항의 역습이 전개됐다. 김준호의 패스를 받은 홍윤상의 슈팅이 이어졌지만 옆그물 맞으면서 한숨을 돌린 광주.

31분에는 광주 '주장' 안영규가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지만 살짝 골대 위를 벗어났다.

전반 34분 티모의 벼락 같은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왔다. 흐른 공을 잡은 허율의 오른발 슈팅은 정확성이 떨어졌다.

전반 39분 이번에는 허율의 헤더가 황인재의 좋은 수비에 막혔다. 이어 전개된 공격에서 아사니의 왼발 슈팅까지 나왔지만 이번에도 황인재를 넘지 못했다. 41분에도 광주가 호수비에 땅을 쳤다. 두현석이 오른쪽에서 올린 공을 허율이 몸을 날려 헤더로 연결했지만, 이번에도 황인재의 팔에 걸렸다.

0-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광주. 후반 시작과 함께 하승운이 티모 대신 그라운드에 오르면서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하승운은 후반 투입과 함께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광주 공격에 불을 지폈다.

후반 9분 광주가 코너킥 상황을 맞았다. 왼쪽에서 아사니가 띄운 공이 안영규의 머리에 닿았지만, 골키퍼 황인재 앞으로 향했다.

후반 14분 하승운이 만든 코너킥 상황, 이번에도 아사니가 키커로 나섰지만 골키퍼 손에 공이 걸렸다. 이어 문전에서 아사니의 패스를 받은 하승운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번에도 황인재의 호수비가 나왔다.

후반 22분 이정효 감독이 3장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사용해 분위기를 바꿨다. 허율, 이희균, 아사니가 빠지고 이건희, 박한빈, 김한길이 그라운드에 올랐다.

후반 23분 다시 한번 광주 벤치에서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박한빈의 슈팅이 골대 왼쪽 맞고 흘렀고, 이어진 정호연의 슈팅은 포물선을 그린 뒤 골대 오른쪽을 때렸다. 엄지성의 슈팅까지 황인재에 막히면서 광주는 땅을 쳤다.

후반 37분 코너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흘려준 공을 잡은 이민기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바운드 된 공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후반 40분 다시 한번 이민기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지만 문전에 있던 이건희의 머리에 걸리지 못했다.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광주가 승리를 위한 골을 위해 막판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후반 46분 이순민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고, 후반 48분 엄지성의 터닝슈팅도 골대를 벗어났다. 17개의 슈팅을 날린 광주는 11개의 유효슈팅을 장식했지만 끝내 황인재를 뚫지 못하면서 0-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먼저 경기를 끝낸 광주는 울산에서 진행된 전북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울산의 1-0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광주는 비로소 관중들과 '아챔' 진출을 기뻐하는 함성을 지를 수 있었다.

한편 이날 경기를 끝으로 K리그1 2023시즌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35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했던 울산이 최종전 승리로 리그 2연패 팀의 위엄을 과시했다.

2일 진행된 파이널B 그룹의 최종전에서는 수원삼성이 강원FC와의 0-0 무승부로 최하위 탈출에 실패, 1995년 창단 후 첫 강등 운명을 맞았다.

강원과 수원FC는 10위와 11위로 '다이렉트 강등'은 피했지만 각각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 김포FC와 '2위'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6·9일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생존전쟁'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무도 우릴 믿지 않았지만…나와 선수는 믿었다"

광주FC 이정효 감독

"다행히 안졌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이 "나는 나를 믿었다"고 기적 같던 2023시즌을 이야기했다.

이정효〈사진〉 감독이 이끄는 광주가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진행된 K리그1 2023시즌 최종전에서 2위 포항스틸러스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상대 골키퍼 황인재의 신들린 선방쇼에 막혀 승리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4위 전북현대와 5위 인천유나이티드가 나란히 패배를 기록하면서, 광주는 3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2023시즌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K리그2에서 압도적인 질주로 우승을 이뤘던 광주지만 시즌 시작할 때만해도 광주를 주목한 이들은 없었다. 하지만 광주는 파이널A을 지나쳐 K리그1 구단 최고 성적이었던 6위를 넘어 3위까지 올라섰다.

또 울산현대가 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또 2위 포항스틸러스가 'FA컵 우승'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 직행하면서, 3위 광주에 ACLE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졌다.

이날 승리를 했다면 다른 구장의 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아시아 무대' 진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광주. 상대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에도 황인재를 중심으로 '수비벽'을 높게 세운 포항에 막혀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결국 3위를 이뤄냈다.

경기가 끝난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정효 감독은 "다행히 안 졌다. 우리가 잘해서 3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도움을 받아서 3위를 했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경기만 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나도 그렇고 선수들고 그렇고, 나의 부족한 선수들의 부족함 그리고 구단의 부족함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많은 홈팬이 오셨는데 승리로 보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3위로 시즌을 마감하고 아시아무대로 갈 수 있다는 점은 위안이 됐을 것이다. 추운 날씨에도 큰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소감을 말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광주의 놀라운 결과지만 이정효 감독은 아직 배가 고프다.

이정효 감독은 "오늘 선수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만 하는 경기는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법 제시해서 운동장 안에서 선수들 할 수 있게 잘 만들어보겠다. 우리 선수들 1년 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광주의 3위지만 이정효 감독에게는 '준비된 계획'이었다.

이정효 감독은 "처음에 3위 한다고 하니까 선수들이 웃었다. 파이널A 올라가면 3위 노려보자고 했다"며 "벤치에 있는데 답답해서 숨을 못 쉬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해줘서, 믿게끔 도달하게끔 했다.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3위라는 목표를 세운 '믿는 구석'에 대해 "나를 믿었다"고 웃은 이정효 감독은 "나를 믿고 선수들을 믿고, 신념을 굽히지 않고 올바른 길로 계속 간다면 선수들이 K리그2에서 한번 이뤘기 때문에 자신감만 심어준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선수들의 훈련량을 보고 노력하는 걸 보고 믿음이 갔다"고 지난 시즌 경험과 광주만의 노력을 3위 원동력으로 이야기했다.

광주를 '축구 도시'로 만든 2023시즌. 이번 성과로 이정효 감독은 '광주 축구' 새 역사를 열었다.

이정효 감독은 "광주가 창단한 지 13년이 됐는데 선수들이 마음대로 훈련할 수 없는 훈련장이 없었다. 이제 훈련장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간다는 점이 나는 물론 선수들, 광주 구단에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성과가 다른 것보다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변화를 이끈 시즌이었지만 내년 시즌 리그는 물론 아시아무대까지 동시에 뛰어야 하는 만큼 눈에 띄는 외부 변화가 필요하다.

이정효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야기한 게 '(변화를)만들자가 아니라 만들어지게끔 만들어 주자'였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바랐을 때 해줄 수 밖에 없게 만들자'를 이야기했다. 이 정도면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 광주 시민과 팬분들이 운동장, 훈련장을 짓는지 안 짓는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린다"고 시민들과 광주시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다.

/김여울 기자 wool@

3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3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프리 스케이팅 남자 시니어에서 차준환(고려대)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발목이 '발목' 잡지 않았다

피겨 차준환, 부상에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우승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차준환(고려대)이 발목 부상을 이겨내고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했다.

차준환은 3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4-2025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겸 2023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87.00점, 예술점수(PCS) 87.05점, 총점 174.25점을 받았다.

이로써 쇼트프로그램 점수 86.28점을 합해 최종 총점 260.53점으로 서민규(240.05점·경신중), 이재근(238.50점·수리고)을 꺾고 1위에 올랐다.

차준환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을 높였다.

2024-2025시즌 태극마크는 1차 선발전 총점과 다음 달에 열리는 2차 선발전 총점을 합산해 남자 싱글 상위 4명에게 준다.

차준환은 이번 대회 상위 3명에게 주어지는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 선수권대회 출전권도 받았다.

메이저 대회인 사대륙 선수권대회는 내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이날 차준환은 통증을 안고 대회 출전을 강행했다.

차준환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른발 발목 신경 조직을 다쳤고, 통증이 심해진 탓에 지난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지만, 불참 시 국가대표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이번 대회 출전을 강행했다.

차준환은 4회전 점프를 1개만 배치하는 등 구성의 난도를 낮추는 대신 연기력 안정에 집중했다.

첫 번째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기본점수 9.70점에 수행점수(GOE) 2.91점을 얻었고 두 번째 과제인 트리플 악셀도 클린 처리했다.

차준환은 순조롭게 연기를 이어갔다. 트리플 러츠-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뛴 차준환은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4)으로 연기 완성도를 높인 뒤 트리플 러츠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다.

우아한 스텝스퀀스(레벨4)로 관중들의 박수를 받은 차준환은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에서도 흔들림 없는 연기를 이어갔다.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뛴 뒤 트리플 루프, 트리플 플립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모든 점프 과제를 수행한 차준환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3), 코레오 시퀀스,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으로 연기를 마쳤다.

/연합뉴스

'혹사 논란' 뮌헨 김민재 폭설에 열흘간 '꿀맛 휴식'

독일 베를린에 내리는 폭설로 인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연기되면서 김민재가 예상 밖의 추가 휴식을 얻었다.

애초 뮌헨은 이날 오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우니온 베를린과 2023-2024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뮌헨 구단은 "눈은 밤이 돼야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와 교통난으로 취소가 불가피하다. 알리안츠 아레나 지붕에서 눈이 떨어지면 관중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기된 13라운드 경기는 추후 다시 편성된다.

한편 이날 경기 일정이 사라지면서 최근 혹사 논란이 제기됐던 김민재는 휴식 시간을 벌었다.

김민재는 올 시즌 뮌헨에서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 경기를 제외하고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12경기, UCL 4경기 등 18경기, A매치 6경기 등 총 24경기를 대부분 풀타임으로 소화했다. 지난달 30일 코펜하겐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5차전에 엉덩이 타박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않은 김민재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분데스리가 14라운드 홈 경기가 열리는 오는 9일까지 열흘가량 휴식을 취한다.

/연합뉴스